

# “가족과 태극마크 떠올리며 부상에도 참고 완주했죠”



## 오픈워터 남자 5km 완주 백승호

“가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레이스를 마친 백승호(29·오산시청)의 코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지난 13일 여주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남자 5km 경기. 대회 첫 금메달이 걸린 이 레이스에 백승호는 조재후(20·한국체대)와 함께 출전했다.

당초 30위 안쪽을 목표로 했던 그는 48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경기를 마친 뒤 백승호는 “훈련량은 충분했는데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 초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며 “한번 차이가 벌어지니 몰살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출발 직후 몸싸움 과정에서 그는 다른 선수의 팔꿈치에 코를 맞았다.

백승호는 “한번 부딪히고 나니 코로 숨이 안 쉬어졌다. 눈물도 핏 돌아서 물안경을 잠깐 벗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 더 당황했다”며 “초반에 꼬이고 나니 근육도 말리고 맥박도 엉켜 페이스가 무너졌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포기도 생각했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가족과 태극

몸싸움 과정에서 부딪혀 코 다쳐 초반 페이스 무너져 부인 “포기 않은 남편 자랑스러워”

마크의 무게를 떠올리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생각 덕분에 끝까지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백승호의 아내이자 배우 스타인 배유나(한국도로공사)는 경기장을 찾아 남편의 경기를 지켜봤다.

그는 지난 4월 백승호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다. 백승호는 이번 대회를 위한 훈련에 몰입했고, 배유나도 여가 수수 후 재화에 몰두하면서 바쁘게 지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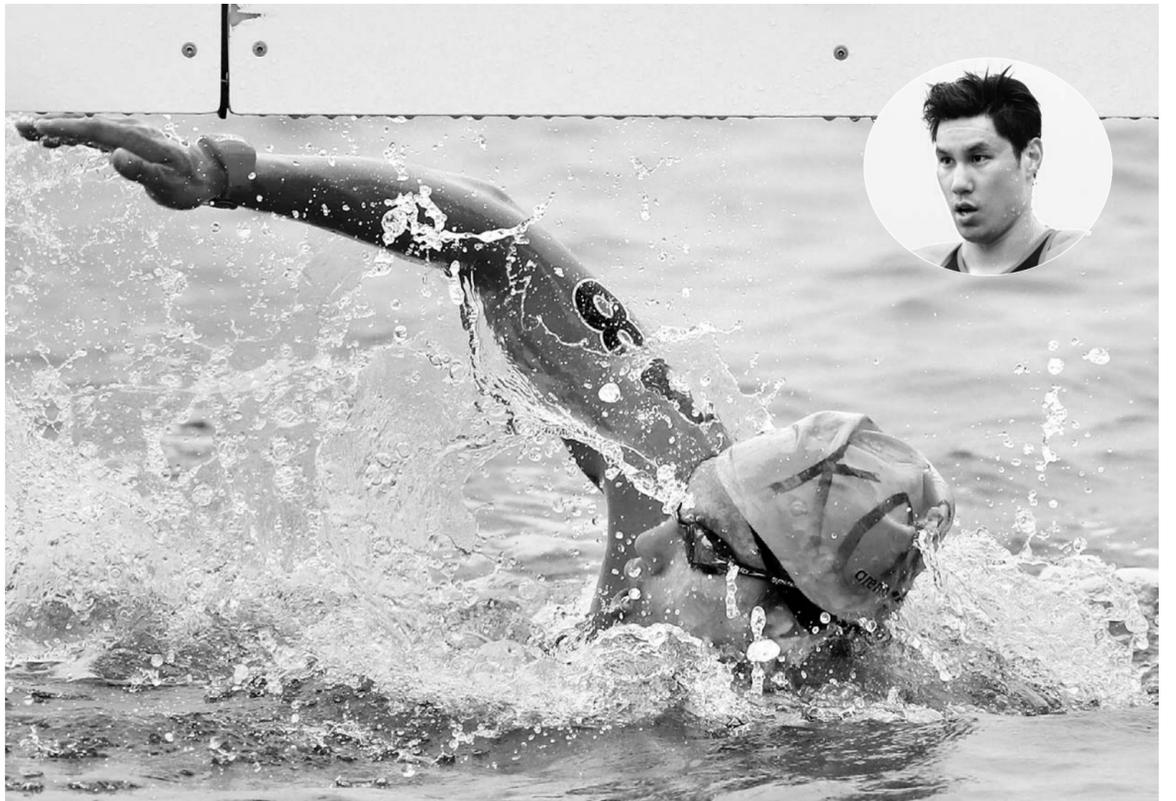
배유나는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다 왔다. 아쉽지만 남편이 이런 좋은 대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밝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던 그는 남편의 부상 이야기를 듣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도 운동선수이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안다”며 “이런 큰 대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치른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백승호와 함께 레이스를 마친 조재후는 “이번이 첫 공식경기였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빨라서 놀랐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며 “오픈워터는 몸싸움 때문에 힘들지만, 또 그만큼 경연과 다른 매력이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계속 이 종목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별취재단=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결승선 통과하는 백승호 13일 여주 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오픈워터수영 남자 5km 경기에서 백승호가 터치패드를 찍고 있다. 백승호는 57분 5초 30의 기록으로 총 60명의 출전 선수 중 48위를 기록했다. <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 오픈워터 남자 5km 헝가리 라소프스키 대회 첫 금메달

### 중 신신 아시아 선수 첫 오픈워터 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은 헝가리에게 돌아갔다. 지난 13일 여주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놓고 오픈워터 선수들의 경쟁이 벌어졌다.

오픈워터 남자 5km에 출전한 헝가리 크리스토프 라소프스키는 53분 22초 1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광주 대회 ‘1회 금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의 신신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오픈워터 시상대에 올랐다. 그것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다. 신신은 지난 14일 열린 오픈워터 여자 10km 경기에서 1시간54분47초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끝냈다. 이와 함께 신신은 오픈워터의 ‘아시아 1호 메달리스트’이자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다이빙 강국” 중국의 메달 레이스도 시작됐다. 다이빙에서 첫 메달이 나온 13일, 중국은 이날 걸린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다.

후성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에 출전한 렌젠



오픈워터수영 여자 10km 경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신신(중국). 제·쓰야제가 346.14점으로 금빛 입수를 하면서 대회 3연패를 이뤘다. 이 금메달을 시작으로 여자 스프링보드 1m에서 천아원(285.45점), 남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3m에서 차오위안·셰쓰이 역시 1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은 다이빙 독주에 나섰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화재경보기 오작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경기 중단 소동

### 비치수구 일정 변경에 시민 불만...경기 운영 미숙 보완해야

지난 12일 개막하며 대회 4일째를 맞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관람객과 선수들을 당황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적인 수영행사다 보니, 대회 초반 경기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면서 경기장 곳곳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다.

지난 12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대회 첫날 경기로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이 진행됐다. 총 6번의 다이빙 연기를 하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 방식이다. 44명의 선수가 참가한 예선에서 마지막 주자인 한국 김영남의 연기가 끝난 뒤 가장 먼저 경기를 치렀던 프랑스의 알렉시스 잔다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두 번째 연기를 위해 보드에 섰을 때 화재경보가 울렸다. 녹음된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경기장은 술렁거렸고, 관중들은 소방관계자들

에게 상황을 물으며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이내 화재 경보가 꺼지면서 경기가 재개됐다. 화재 경보 소동을 겪은 알렉시스는 6차 시기 합계 292.15점을 받아 32위에 그치면서 상위 12명에게 주어지는 결선 진출 자격을 얻지는 못했다.

시범경기인 비치수구 경기의 경우, 경기 당일 일정이 변경되며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1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선수권대회 경기세부경기일정 자료에 따르면 비치수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1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미국과 중국 여자 경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5분 프랑스대 아르헨티나 남자경기, 오후 1시 15분 호주대 스페인 여자경기, 오후 2시 15분 중국대 캐나다 남자 경기를 끝으로 4경기를 치르게 되어있다. 하지만 경기 당일인 13일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됐다. 오전 11시 15분 시작하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남자경기가 1시간 앞당긴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됐다. 뒤이어 열린 경기 시작

시간도 한 시간씩 앞당겼다.

일정이 변경됐지만 사전 통보나 안내도 없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김영택(62·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오후 2시 15분에 시작하는 비치수구를 보기 위해 경기시간 보다 10여분 일찍 경기장을 찾았더니 경기는 종료됨을 남겨두고 있었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안내 요원들도 경기일정이 변경된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이 더운 날 수구를 보기위해 먼 길을 찾았지만 경기는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되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는 “FINA(국제수영연맹)로 부터 경기가 열리는 13일 당일 경기시간 조정하겠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면서 “경기 당일 통보받아 미리 시민들에게 통보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치수구는 일반 수구보다 규모가 작은 경기로 골키퍼 1명, 선수 3명이 출전하며 이번 대회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치러진다.

/김한영·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